

2025년(제62회) 변리사1차 민법개론 총평

변리사스쿨 민법강사 류호권

먼저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하신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출제자가 아니어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겠지만 감히 추측을 좀 해보자면, 이번 민법개론 출제자의 의도는 ‘기본이 튼실한 수험생이라면 90점 이상을 받게 해주자’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출제자가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번 출제자는 생소한 판례들을 간간히 지문에 끼워넣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출제자들이 선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출지문에 없던 생소한 판례들이 가끔 눈에 보였는데, 대부분 정답지문과는 무관한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고 확실한 정답지문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기본이 튼실한 수험생이라면 크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는 3문제, 틀려도 어쩔 수 없는 문제는 1문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문과 기본판례, 기출지문 등이 숙지된 수험생이라면 90점까지는 확보할 수 있는 출제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컨대 <기간> 문제와 같이 단순한 조문 문제이긴 한데 여태까지 기출되지는 않은 형태로 출제를 하여 평소에 조문을 눈여겨 봐 두었던 수험생이라면 쉽게 맞출 수 있지만 기출문제만 달달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한 수험생은 맞추기 어렵도록 출제하여 시험이 모든 수험생들에게 쉽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보면 출제자가 이번 민법개론 시험에서 의도한 것은 기본기가 튼튼한 수험생과 그렇지 못한 수험생들을 가리는 것이었고 그러한 의도는 일단 성공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 수험생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민법개론 90점 이상의 고득점자의 비중이 너무 높아진다면 이는 커트라인의 상승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커트라인 논쟁이 시작될텐데, 최종합격이 목표시라면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